

O-2 세시풍속 전통지식기술의 개발가치 평가 및 이용구조 분석

Valuation and Their Using Structure of Traditional Knowledge on Seasonal

김미희* · 박덕병 · 안윤수 · 전영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Kim, Mi Heui* · Park, Duk Byeong · Ahn, Yoon Soo · Jun, Young Mi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I. 서론

1992년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 8조 (j)항에는 전통지식·기술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지식과 기술을 존중, 보호, 유지,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시풍속은 “음력 정월부터 선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시기에 행해지는 주기전승(週期傳承)의 농경의례(農耕儀禮)”(김명자 1990) 라고 정의되어 농업과의 관련성이 강조되고,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오면 관습적으로 되풀이하여 행하는 특수한 생활행위, 즉 주기전승의 의례적인 행위”(이두현 외 1974)라고 정의한다면 의례, 놀이, 예술, 문학, 습관 등으로 범위를 늘릴 수 있다.

또한 세시풍속은 예로부터 세시(歲時)·세사(歲事)·월령(月令)·시령(時令) 등으로 일컬어져 시계성(時季性)이 강조되었으며 주요한 세시풍속일을 절일(節日)이라 하여 명절로 여겼고, 그 대부분이 농업생산과 관련된 명절들이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도 느리기는 하였으나 계속 변화를 겪어왔듯이 현대사회의 전통세시풍속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18~19세기의 세시풍속이 지역, 신분, 계층, 직업집단을 불문하고 동일한 형태로 행해지지 않았으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특정한 절기나 풍습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는 것을 「동국세시기」, 「경도잡지」 등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시풍속은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게 살아온 생활의 슬기가 담겨있고 우리 민족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주는 공동체적인 삶을 반영하며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생활의 주기성과 조상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알게 한다. 매달 그 달의 기후와 시절에 맞는 풍속들이 있으며 그 풍속들은 저마다 독특한 유래와 풍습이 있다. 특히, 전통문화와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 노동시간 감소·고용방식의 변화·주 5일 근무와 교육, 환경친화형 상품 선호 등으로 인해 세시풍속이 생활 그 자체가 되고, 체험하고 배우며, 상품으로서 구매하고, 현대화 될 변화의 요소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세시풍속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원개발 차원에서 개발가치를 평가하고 그 이용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인지 등 세시풍속 전통지식기술의 자원화·산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방법

세시풍속의 개발가치 평가는 delphi 조사기법을 적용하여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3회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개발가치가 있는 항목 제안과 그 사유, 평가영역별 가치 정도, 평가근거, 연구·개발 방향 등이다.

세시풍속은 크게 풍속 및 의례분야, 음식분야, 놀이분야로 구분하였으며, 평가영역 선정은 전통세시풍속의 현대화와 관광자원화 방안(국립민속박물관, 1998) 등을 참고하여 생활유용성, 관광체험성, 상품화 가능성, 현대화 가능성 등 4개영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전문가 선정은 민속과 전통음식·놀이 등 세시풍속 관련 중부권 학계와 현장의 전·현직 전문가 26명(학계 16, 현장 10)으로 선정하였다.

평가영역 각기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생활유용성: 일상생활 또는 공동체 생활을 운택하게 하기위해 유용하게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나타냄

○ 관광·체험성: 농촌관광 또는 이벤트화 등 볼거리, 체험거리로 얼마나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나타냄

○ 상품화 가능성: 전통 세시풍속을 기념품, 특산품, 한국·향토음식, 생활필수품 등과 같이 얼마나 문화·일상상품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나타냄

○ 현대화 가능성: 위의 생활유용성, 관광·체험성, 상품화가능성 3개영역은 물론 그 밖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대 세시풍속 연구·개발에 적용할 만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냄

자료 분석은 SPSSWIN 12.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상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전문가 제안 항목

Delphi 조사 1라운드 때 전문가 1인 이상이 개발가치가 있다고 제안한 세시풍속 항목은 총 297개(풍속/의례분야 152, 음식분야 79, 놀이분야 66)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 중에서 6명 이상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것은 48항목으로 풍속 및 의례관련 18항목은 세배와 덕담, 설빔, 복조리, 정조차례와 하례, 왕겨나 콩깍지로 세안하기, 콩가루 비누로 얼굴 씻기, 대보름달에 소원 빌기·달맞이, 춘첩자(春帖子), 경로회 베풀기(耆老宴), 창포물에 머리감기, 약초 캐기(익모초, 쑥)·약쑥 말리기, 단오부채, 추석빔, 벌초와 성묘, 추석차례, 노인에게 새 버선(양말) 선물, 책력이나 달력선물, 용왕제, 풍년제(기풍제, 광제, 풍신제)·별신제·연등제이고, 음식 18항목은 떡국, 인절미·(팥)시루떡, 장(醬)담그기, 부럼·부럼깨기·지인끼리 부럼 나누기, 이명주, 약식, 오곡밥(보름밥), 복쌈, 묵은나물(진채식), 화채·앵두화채, 화전, 수리떡·차륜병·쑥떡·취떡, 제호탕, 삼계탕, 송편, 토란국(탕), 팔죽, 한과(다식, 약

과, 강정)이며, 놀이 12항목은 옷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쥐불놀이·헛불싸움, 줄다리기(강다리기), 농악놀이, 닭교, 풀피리, 닭싸움, 씨름, 그네뛰기, 강강술래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안은 참여 전문가들의 기호와 판단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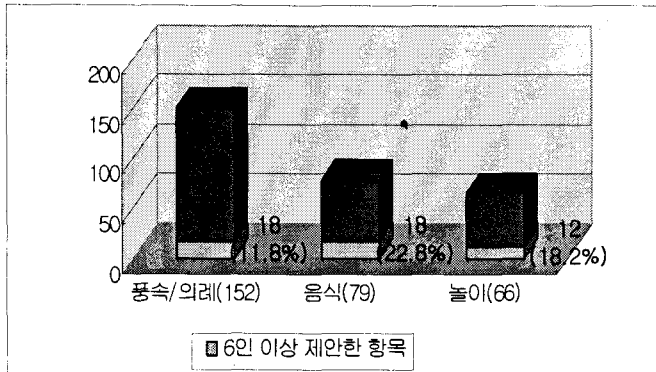


그림 1. 세시풍속 분야별 6인 이상 제안 항목 수

2. 영역별 평가

제 2, 3라운드 델파이조사 때 평가영역별 5점 척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세시풍속 전통지식기술 중 개발가치가 우수(3.0 이상)하다고 평가된 항목은 생활유용성 영역이 82항목, 관광체험성 영역이 134항목, 상품화가능성과 현대화가능성 영역이 각각 118항목으로 관광체험성 영역 항목이 가장 많고, 생활유용성 영역 항목이 가장 적었다(그림 2). 특히 종합적인 측면과 연구·개발가치를 평가한 ‘현대화가능성’ 영역의 우수 항목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풍속 및 의례 40항목, 음식 53항목, 놀이 25항목이며, 이중 제안자 수가 8명(30.8%) 이상은 34항목이고, 소수인 2명(7.7%) 이하는 47항목(39.8%)으로 전문가들의 항목별 제안자수와 연구·개발의 가능성, 경쟁력 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또한 4개영역 모두 개발가치가 높게 나타난 항목(3.0 이상)은 총 33항목으로 풍속 및 의례분야는 152항목 중 설빔, 대보름달에 소원 빌기/ 달맞이, 단오부채, 추석, 추석빔 등 5항목(3.3%)이고, 음식분야는 79항목 중 떡국, 장담그기, 부럼, 이명주, 약식, 오희밥, 복쌈, 삼계탕, 송편, 팔죽, 김장, 수정과, 비빔밥, 맥적, 한과 등 15항목(19.0%)이며, 놀이분야는 66항목 중 옷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팽이놀이, 줄다리기, 농악놀이, 제기차기, 연등놀이, 씨름, 그네뛰기, 탈춤/탈놀이, 강강술래, 공기놀이 등 13항목(19.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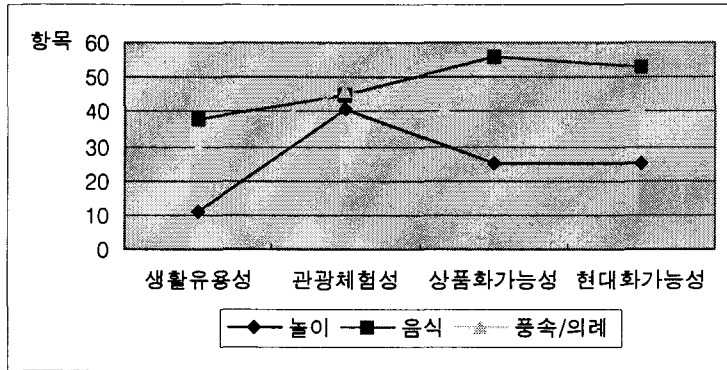


그림 2. 세시풍속 평가영역별 개발가치 우수항목(3.0 이상)

표 1. '현대화가능성' 기준 개발가치 우수항목의 예

구분	전통지식·기술항목 명	제안자 수 (제 1차 조사)	평가영역별 개발가치(5점 척도)			
			생활유용성	관광체험성	상품화가능성	현대화가능성
풍속 / 의례 분야	◦ 복조리	12	3.1	3.8	4.6	4.1
	◦ 단오부채(만들기)	12	3.4	4.3	4.6	4.0
	◦ 복주머니	2	2.9	3.5	4.2	4.0
	◦ 추석	3	4.2	3.9	3.5	3.8
	◦ 단오(端午)	4	3.0	4.5	3.9	3.8
	◦ 대보름달에 소원 빌기/ 달맞이	7	3.6	4.5	3.6	3.7
	◦ 연하장	2	3.3	2.8	3.5	3.7
	◦ 설빔	9	4.0	3.5	3.9	3.7
	◦ 강릉 단오제(단오)	4	2.7	4.4	3.9	3.7
	◦ 창포물에 머리감기	9	2.9	4.0	3.6	3.6
	◦ 전국 세시풍속 관련 알려주기 달력	1	3.5	3.1	3.6	3.5
	◦ 추석빔	6	3.9	3.4	3.7	3.5
	◦ 추석차례	6	4.4	3.4	3.3	3.5
	◦ 봉송화 물들이기	2	3.0	3.8	3.5	3.5
	◦ 세화(歲畫)	4	2.7	3.1	3.7	3.5
	◦ 책력이나 달력선물	7	3.8	3.3	4.0	3.5
	◦ 약초캐기(익모초, 쑥)/ 약쑥 말리기	8	3.1	3.4	3.8	3.5
	◦ 나무심고 채소씨 뿌리기	3	3.7	3.5	2.9	3.4
	◦ 짚공예품 만들기	1	2.3	3.6	3.7	3.3
	◦ 장승·숫대 만들기	1	2.4	3.6	3.6	3.3
◦ 세배와 덕담	14	4.6	3.5	2.4	3.3	
◦ 춘첩자(春帖子)	10	2.8	3.3	3.5	3.3	
◦ 왕겨나 콩깍지로 세안하기, 콩가루 비누로 얼굴 씻기	8	3.0	3.2	3.3	3.3	
음식 분야	◦ 떡국	11	4.3	4.3	4.4	4.4
	◦ 팔죽	17	4.0	4.0	4.5	4.3
	◦ 김장	5	4.3	4.6	4.7	4.3
	◦ 오곡밥(보름밥·경남)	16	4.3	4.4	4.6	4.3
	◦ 부럼/ 부럼깨기/ 지인끼리 부럼 나누기	20	4.2	4.6	4.7	4.3
	◦ 홍삼	1	3.4	3.2	4.3	4.2

	◦ 비빔밥	3	3.6	4.0	4.6	4.2	
	◦ 송편	10	3.9	4.4	4.5	4.2	
	◦ 장(醬)담그기(말날 장 담그기)	12	4.0	4.3	4.3	4.1	
	◦ 약식	11	4.0	3.9	4.5	4.1	
	◦ 한과(다식, 약과, 강정)	6	3.4	4.0	4.5	4.1	
	◦ 식혜	2	3.4	3.5	4.4	4.1	
	◦ 삼계탕	9	3.8	3.8	4.3	4.1	
	◦ 맥적(불고기)	1	3.5	3.8	4.4	4.1	
	◦ 수정과	3	3.4	3.6	4.4	4.0	
	◦ 국화차	1	3.1	3.4	4.0	3.9	
	◦ 화전	16	3.2	3.9	4.0	3.9	
	◦ 복쌈	8	3.6	3.8	4.1	3.9	
	◦ 감자 송편	1	3.3	3.7	3.9	3.8	
	◦ 사찰음식	1	3.1	4.1	4.0	3.8	
	◦ 목은나물(진채식)	12	3.9	3.6	4.1	3.8	
	놀이 분야	◦ 율놀이	22	4.3	4.8	4.5	4.6
		◦ 연날리기	22	3.9	4.8	4.5	4.5
◦ 농악놀이		8	3.6	4.6	4.0	4.1	
◦ 널뛰기		8	3.3	4.6	3.5	4.1	
◦ 강강술래		12	3.3	4.6	3.9	4.0	
◦ 팽이놀이		2	3.3	4.5	4.0	3.9	
◦ 씨름		16	3.4	4.5	3.4	3.9	
◦ 탈춤/ 탈놀이(274. 봉산탈춤 포함)		5	3.0	4.5	4.4	3.8	
◦ 줄다리기(강다리기)		11	3.6	4.5	3.6	3.8	
◦ 제기차기		2	3.1	4.2	4.0	3.8	
◦ 그네뛰기		13	3.2	4.5	3.5	3.7	
◦ 세시놀이의 시리즈물 개발		1	2.8	3.3	3.3	3.4	
◦ 관노가면놀이(강릉)		3	2.6	3.6	3.2	3.3	
◦ 연등놀이(관등놀이)		3	2.7	3.8	3.3	3.3	
◦ 줄넘기		1	3.5	3.5	3.0	3.3	
◦ 봉선화염지		1	2.7	3.3	3.3	3.2	
◦ 공기놀이		1	2.6	3.7	3.3	3.2	
◦ 답교		6	2.9	3.7	2.7	3.1	
◦ 택견		2	2.9	3.5	3.1	3.1	
◦ 플피리		7	2.4	3.7	3.3	3.1	
◦ 민속놀이 한마당	1	2.4	3.4	3.0	3.1		

3. 세시풍속 전통지식기술의 향후 이용구조

세시풍속 전통지식기술의 향후 이용구조는 개발가치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가 제안한 297항목의 개발가치 평가 근거를 기초로 상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하였다. 그 결과, 특성화되어 나타나는 영역은 '현대기술과의 접목'과 '기념일 지정'이다.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여 가치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세시풍속은 풍속/의례분야의 상원, 연하장, 쯔생이집 보기, 토정비결, 월별 세시풍속 소리/그림, 음식분야의 인떡, 청맥가루, 풋보리죽, 놀이분야의 거북놀이, 팔씨름, 단풍놀이, 닭싸움이다. 또 기념일을 지정하여 가치를 개발할 수 있는 세시풍속은 설빔, 남자가 먼저 부엌에 들어가기, 머슴 위로하기, 경로회 베풀기,

노인에게 새 버전 선물 등이다. 이것은 모두 풍속/의례분야에 속한 세시풍속인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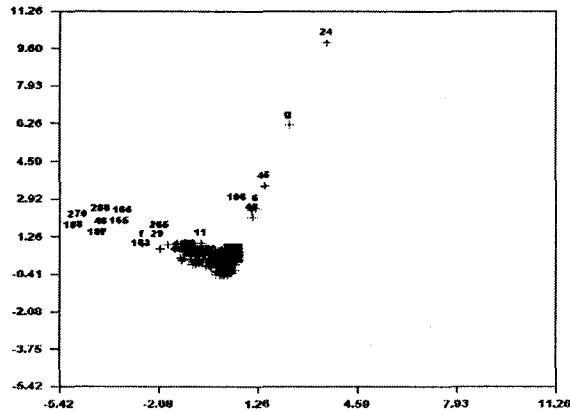


그림 3. Correspondence Analysis에 의한 세시풍속 전통지식기술의 이용구조

4. 세시풍속일의 현대적 발전

세시풍속 중에서 현대에 맞는 역할의식, 가정의 소중함, 노사간의 화합, 남녀의 사랑, 노인공경 등을 위하여 의미 있는 날로 제안된 풍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묘일의 ‘남자가 먼저 일어나 대문 열기’와 상신일의 ‘남자가 먼저 부엌에 들어가기’는 가사분담을 할 수 밖에 없는 현대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타파와 집안일의 역할분담의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개발 가능하다.

둘째, 상미일의 ‘좋은 날로 무슨 일을 해도 해가 없는 날’이다. 이 날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날로써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전파의 날’로 적극 권장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일의 ‘외박하지 않기’는 무질서한 현 사회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하며, 건전한 가정 가꾸기 운동으로 전승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노비일의 ‘머슴 위로하기’ 풍속은 ‘노동자 으뜸의 날’로 발전시켜 전통세시풍속으로써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좀생이별 보기, 행운의 콩 볶기 등)을 활용하여 기업주와 노동자,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다섯째, 칠석은 전우직녀 만남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 ‘연인의 날’로 지정, 서로의 사랑을 기약하는 날로 삼는다. 또 칠월칠석의 의미를 살려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사회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부부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여섯째, 추석 근친(觀親 : 중로 회견) 풍속은 시대에서 명절 후 친정에 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는 요즘, 이미 우리 조상들이 추석 후에 행했던 “중로 회견(반보기)”행사를 좀더 공식화하고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각종 명절 때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감시켜줄 수도 있고, 시댁과 친정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딸만 있는 가정이 늘어나는 이 때 친정 부모의 외로움도 덜어줄 수 있다.

일곱째, 동지의 노인에게 새 버선(양말) 선물이다. 동짓날의 긴 밤처럼 부모가 장수하도록 버선을 기워 선물을 하였던 마음을 되살려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우노인에게 양말, 옷 등을 선물하는 날, 겨울맞이 어르신에 대한 관심 갖는 부모의 날 등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이들 중에서 '현대화가능성' 측면의 개발가치 우수항목(3.0 이상)은 '칠석'과 동지의 '노인에게 새 버선(양말) 선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자원화·산업화하기 위하여 풍속 및 의례, 음식, 놀이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세시풍속의 개발가치를 평가한 결과 26명의 전문가 그룹이 개발가치가 있다고 지목한 아이템은 총 297항목(풍속/의례 152, 음식 79, 놀이 66)이다. 이중 개발가치가 우수(3.0 이상)하다고 평가된 항목은 생활유용성 영역이 82항목, 관광·체험성 영역이 134항목, 상품화가능성과 현대화가능성 영역이 각각 118항목으로 관광·체험성 측면 항목이 가장 많았다.

세시풍속 평가영역의 종합적인 측면과 연구·개발가치를 평가한 '현대화가능성'의 우수항목은 풍속/의례분야 40항목, 음식분야 53항목, 놀이분야 25항목이며, 이중 제안자 수가 8명(30.8%) 이상은 34항목이고, 소수인 2명(7.7%) 이하는 47항목(39.8%)으로 전문가들의 항목별 제안자수와 연구·개발의 가능성, 경쟁력 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또한 세시풍속 분야별 결과를 보면 풍속/의례분야와 놀이분야는 관광·체험성이, 음식분야는 상품화와 현대화가능성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결과, 특성화되어 나타나는 영역은 '현대 기술과의 접목'과 '기념일 지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통토착지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원화 산업화의 연구개발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무학(1995) 한국세시풍속기. 집문당.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1). 한국민속의 세계. 서울: 창작마을.
- 국립민속박물관(1998) 전통세시풍속의 현대화와 관광자원화 방안. 제34회 국립민속박물관 학술 발표회.
- 김광역(1984) 전통생활양식의 정치적 측면.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명자(1989) 한국세시풍속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1990) 세시풍속 자료의 분류 시고:가면극·세시풍속·산육속. 민속학회편.
- 문화재관리국(1960~198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이두현·장주근·김광규 (1974) 한국민속학개설. 민중서관.
- 이해준(1998) 한국의 세시풍속. 국립민속박물관